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오만

Sultanate of Oman

2019년11월8일 | 조사역(G3) 안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10천 km ² 	인구 431만 명 (2019 ^f) 	정치체제 절대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GDP 766.09억 달러 (2019 ^f) 	1인당GDP 17,791달러 (2019 ^f) 	통화단위 Omani Rial 	환율(U\$기준) 0.3845 (2018 평균)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북동쪽으로 오만 만, 동쪽과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접경하고 있음.

□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수출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자원수출로 얻은 수익을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여 산업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석유산업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세습군주인 Qaboos bin Said 왕은 1970년 즉위 후 '20세기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현대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왕위 승계와 관련된 불안정성이 존재함.

□ 수니파 또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 타 이슬람 국가와 다르게 국민의 대다수가 이바디파(Ibadism)*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슬람교 내의 소수 종파들 중 하나로 온건한 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만과 잔지바르, 리비아, 동아프리카, 튀니지의 제르바 섬 및 알제리의 음자브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3. 28 수교 (북한과는 1992. 5. 25)

주요협정 항공업무협정('87), 문화협정('95),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04),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06), 외교관사증면제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615,572	641,218	674,885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광산기계
수입	2,367,845	2,333,294	2,775,072	천연가스, 원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60건, 792,556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4.7	4.9	0.3	1.8	0.0
소비자물가상승률	0.1	1.1	1.6	0.9	0.8
재정수지/GDP	-15.9	-21.3	-14.0	-7.9	-6.7

자료: IMF, EU

원유생산량 감소 및 유가의 더딘 회복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오만은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2018년에는 국제유가* 회복 및 카잔(Khazzan) 가스전 신규 가동에 따른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19년에는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 및 국제유가의 더딘 회복세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0.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변동 추이(달러/배럴) : 49.49('15) → 40.76('16) → 52.43('17) → 69.78('18) → 62.36('19. 9)

** 오만은 OPEC 비회원국이나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대응해 2018. 12월 OPEC+(OPEC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합의에 근거해 원유 생산량을 2% 줄이기로 합의(99만 배럴/일 → 97만 배럴/일)하였으며, 동 감산조치는 2020년 3월까지 유지될 예정임.

- 한편, 오만 정부는 석유 부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 중임. IHS Markit에 따르면 물류산업 및 관광업은 Muscat 국제공항 확장 및 항만 인프라 개발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부진 및 정부지출의 감소로 소매업 및 부동산 등 내수산업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VAT 도입 지연으로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 오만은 2008년 주거비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12.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후 정부의 연료, 전기,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임.

* 오만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비중은 주거비 26.5%, 식료품 23.9%, 교통비 19.2% 등임.

- 오만 정부는 대부분의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정환율제를 채택함에 따라 수입재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식료품 국제가격 안정세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0.9%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약세, 당초 2019년 9월 중 시행기로 한 부가가치세(VAT) 도입 지연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2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은 저유가 지속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5%) 도입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이 시행 중임.

국내경제

국제유가의 더딘 회복세로 2019년에도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오만은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재정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재정구조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1.1%의 적자로 전환된 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오만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연료 보조금 삭감, 공공 부문 인원 감축, 법인세 인상,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 중인 관계로 긴축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편임.
- 2018년에는 국제유가 회복 및 카잔 가스전 생산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 지출, 전력 보조금 지급 및 가스 생산비용 투입 등으로 증가한 재정지출이 이를 상쇄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는 -7.9%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19년에는 국제유가의 더딘 회복세 및 경제다변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투자로 GDP 대비 -6.7%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예산안 중 공공지출은 2018년 예산안 대비 약 3% 증가한 129억 리얄로 편성되었음. 오만 정부는 경제 다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Tanfeedh 시행에 역점을 두고 관광업, 제조업, 물류업, 수산업, 광물업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 사업에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며, 그 외에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및 5,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도 투자할 계획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 상 수 지	-10,954	-12,539	-10,981	-4,347	-4,302
경상수지/GDP	-15.9	-19.2	-15.6	-5.5	-5.6
상 품 수 지	9,119	6,258	8,764	18,085	19,048
상 품 수 출	35,682	27,544	32,886	41,730	42,102
상 품 수 입	26,564	21,287	24,121	23,645	23,054
외 환 보 유 액	17,191	19,931	15,835	17,141	17,305
총 외 채	36,069	44,351	64,216	74,780	80,161
총외채잔액/GDP	52.3	67.7	91.0	94.3	104.6
D.S.R.	3.3	13.5	14.9	17.1	16.2

자료: IMF, EIU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오만은 석유·천연가스 부문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이 경상수지를 좌우함.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여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다 2018년 국제유가 상승, 서비스 등 비석유 부문의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였음. 한편, 민간 부문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으로 경상이전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중임.

* 경상이전수지(억 달러) : -109.9('15) → -103.1('16) → -98.2('17) → -99.6('18)

- 2019년에는 정부의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Omanization)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잔(Khazzan) 가스전 가동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수준 유지

- 오만의 외환보유액은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의 영향으로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가 월평균수입액의 4.9개월분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오만 정부는 저유가에 따른 쌍둥이 적자 충당을 위해 2018년 76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9년 7월 3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채 발행을 지속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석유·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1.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오만 정부는 석유·천연가스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국부펀드인 SGRF(State General Reserve Fund)를 통해 국내외 주식시장 및 부동산 등에 투자 중이며, 2018년 기준 181억 달러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음.
- 다만,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오만 정부의 외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및 SGRF 자산 규모는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D.S.R.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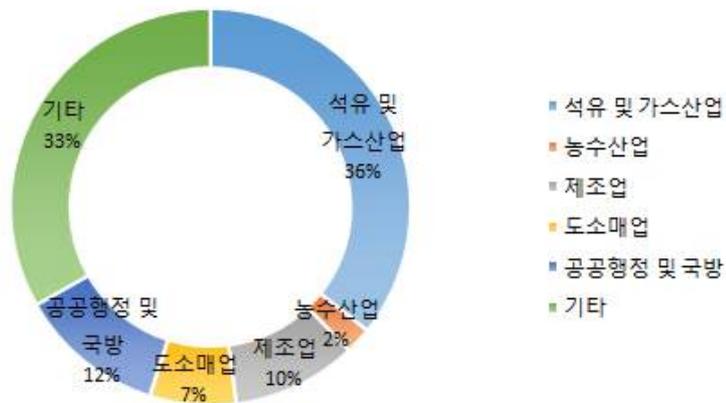
- 오만은 저유가에 따른 쌍둥이 적자 보전 및 주요 국책 프로젝트 발주 재원을 대외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GCC 회원국 중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카타르, 바레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 2018년 기준 GCC 회원국 총외채잔액/GDP(%) : 카타르 101.1, 바레인 90.0, 아랍에미리트 66.3, 쿠웨이트 42.3, 사우디아라비아 28.3
- 오만 정부는 원유 정제시설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전력인프라 구축 등 주요 프로젝트의 투자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공공부채가 누적*되고 있음.
 - * 오만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추이 : 15.5('15) → 32.5('16) → 46.9('17) → 53.5('18) → 58.7('19^o)
- D.S.R. 또한 총외채 증가에 따라 매년 상환해야 하는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면서 2015년 3.3%에서 2018년 17.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는 외채원리금 상환액 소폭 감소로 D.S.R.이 16.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구조적취약성

산업다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지속

- 정부의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천연가스 부문이 GDP의 약 30%, 재정수입의 약 70%,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오만은 저유가 추세가 본격화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재정·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 중임.
- 오만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중 Tanfeedh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수산업, 광업 등 산업다변화 노력을 기울여 2020년까지 석유 부문 기여도를 26%로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2018년 기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함.

오만 산업별 GDP 구성(2018)



자료: 오만 통계청

성장잠재력

원유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수입원으로서의 천연가스 자원 개발

-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인 309,500km²의 영토에 2018년 확인매장량 기준 54억 배럴의 원유(전 세계 매장량의 0.3%, 세계 22위)와 0.7조 m³의 천연가스(전 세계 매장량의 0.3%, 세계 27위)를 보유하고 있음.
- 다만, 오만의 현 원유생산량(지난 10년간 연평균 3.25억 배럴) 유지 시, 추가 광구를 개발하지 못할 경우 향후 15년 내에 원유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원유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수입원으로서 천연가스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17년 6월 BP(British Petroleum)가 카잔(Khazzan) 지역의 61광구 가스 채굴 추진을 시작한 이후 2018년 3월 첫 1단계 시추작업을 시작하여 일일 약 0.3억 m³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 중임.
- BP는 카잔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량을 약 2.8조 m³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카잔 지역 가스전 발견 이전 오만의 가스 매장량인 0.7조 m³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임.
- 한편, BP는 2017년 12월 카잔 프로젝트의 2단계 개발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에 2단계 개발까지 완료 되면 일일 약 0.4억 m³의 가스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카잔 가스전 위치



자료: BP

성장잠재력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 보유

- 오만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역인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 인도,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GCC 회원국들 중에서도 지정학적 이점이 큰 국가임.
- 오만 정부는 2015년 4월 개최된 'GCC 공급망 및 물류 컨퍼런스'에서 'SOLS'(Sultanate of Oman Logistics Strategy 2040)을 발표하였으며, GDP 대비 물류 산업 비중을 2014년 3%에서 2040년까지 10%까지 확대하여 세계 10대 물류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오만은 종합물류단지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 물류 및 투자 제도 개선, 항공 및 항공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하여 물류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르(Sohar) 항, 두쿰(Duqm) 항 및 살랄라(Salalah) 항에 무역 기능을 집중시켜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소하르 항은 인근에 공항 및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의 자유 무역지대 및 산업단지와 연계를 통해 물류업 및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오만 정부는 소하르 항을 2020년까지 연간 약 9,000만 톤의 화물을 취급하는 물류 산업의 중심 항구로 개발할 계획임.

소하르, 두쿰, 살랄라 항 위치



자료: Middle East Institute(MEI)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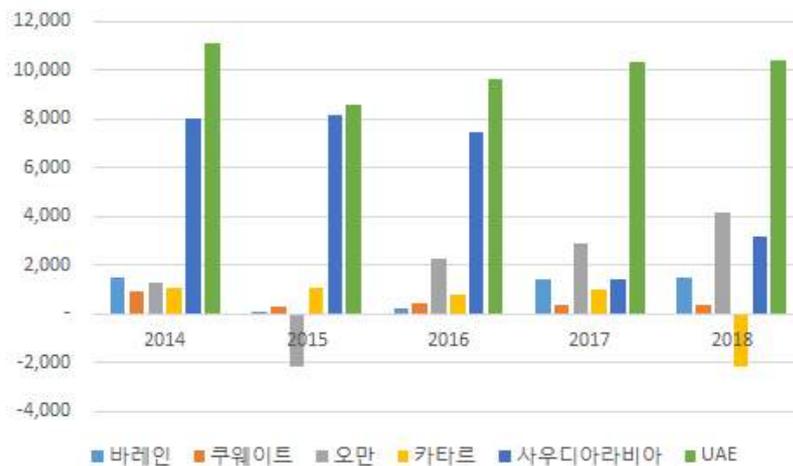
산업다각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적극 실시

- 오만은 과도한 석유 부문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SOC 확충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해결코자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적, 제도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에 의하면 오만의 사업환경 순위는 78위로 GCC 내 다른 국가인 UAE(11위), 바레인(62위)보다는 낮지만, 카타르(83위), 사우디아라비아(92위), 쿠웨이트(97위) 보다는 높은 편임.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9에 의하면, 2018년 오만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2017년(29.2억 달러) 대비 43.6% 증가한 41.9억 달러로 GCC 국가들 중 2위임.
- 한편, 오만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7월 외국인자본투자법을 개정*하였으며, 상공부 및 무역투자청을 중심으로 해외자본투자 담당관청을 일원화하고 전략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제가 완화되어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100% 소유 허용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1월에 발효될 예정

GCC 국가들의 FDI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정책성과

Oman Vision 2020 경제개발계획 추진

- 오만 정부는 1976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였으며, Post-Oil 시대를 대비하고 향후 25년 동안의 비전 수립을 위해 1995년 6월 "The Vision for Oman's Economy: Oman 2020"을 발표, 2020년까지 1인당 실질 GDP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오만 정부는 Oman Vision 2020에서 산업구조 다각화, 국민생활 수준 향상,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 설립 장려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현재 9차 5개년 개발계획 (2016~20년)이 진행 중임.
- Oman Vision 2020의 일환인 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목표는 연평균 3% 경제성장 달성, 비석유 부문의 GDP 기여도 4.3% 성장, 제조업·물류업·관광업·수산업·광업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둔 산업다각화 추진 및 오만 인력 고용률 극대화, 민관협력(PPP)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한편, 오만 정부는 Vision 2020에 이어 향후 중기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40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 계획은 석유 산업 위주에서 탈피한 경제구조 다변화 및 PPP 활성화를 통한 민간 부문 개발 도모, 지역 간 불평등 완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Omanization) 지속 추진

- 오만 정부는 실업률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1988년부터 자국민 고용 의무화 정책인 Omanization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특별경제구역 내에서는 10%의 오만인만 채용해도 되나, 금융·관광업의 경우 직원의 90% 이상을 오만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산업 부문별로 자국민 채용비율을 관리하고 있음.
- 동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오만 자국민의 실업률을 3% 이하로 유지하고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약 6.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문가, 기술자 또는 숙련 노동 분야에 최소 3만 개의 취업 기회를 오만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정치동향

Qaboos 국왕이 49년 간 안정적으로 집권 중이나 고령으로 인한 후계구도 문제 잠재

- 1970년 부왕(父王)을 무혈 쿠데타로 축출하고 즉위한 Qaboos 국왕은 오만의 근·현대화를 주도, 이슬람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온건한 정치·종교 성향을 사회에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집권 중이며, 대내외적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
- “아랍의 봄” 여파로 2012년 오만에서도 급여 인상, 고용률 제고,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는 연속적인 시위가 발발하자, Qaboos 왕은 이에 대응하여 정치·경제 개혁을 단행하였음.
- 정치·사회적으로 경찰청장 등 문제 각료를 경질하는 등 내각을 교체하고 검찰 독립을 강화하였으며, 경제 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 실업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짧은 시간 안에 사태를 수습하였음.
- 그러나 현재 79세(1940년생)인 국왕의 건강이 최근 들어 악화되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017년 3월 국왕의 사촌인 Assad bin Tariz al-Said가 부총리로 임명되어 후계자로 예측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지정된 상태는 아님. 한편, 후계자 없이 국왕이 유고할 경우 국왕 가족들로 구성된 통치 가문위원회가 3일 이내에 만장일치로 후계자를 정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후계자의 이름을 남긴 국왕의 편지를 개봉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함.

사회동향

2012년 시위 이후 안정적 정국 유지

- 2012년 일명 “아랍의 봄”이라 불리우는 중동 소요 사태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Qaboos 국왕의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인근 중동 국가들에 비해 안정된 정치상황으로 소요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대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Qaboos 국왕의 안정적인 통치하에서 특별한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 기조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지속 및 높은 실업률에 대한 젊은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국제관계

중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관계 유지

- 오만은 여타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 소수 종파인 이바디파(Ibadism)인 관계로, 과거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2017년 6월 이후 카타르와 단교*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은 카타르와 국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재노력을 지속하는 등 중립적인 외교노선을 이어가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2017년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 발생을 계기로 2017년 6월 초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또한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앙숙인 이란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오만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선박 항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 오만은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랍 국가들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및 영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음.
- 미국과는 1980년 6월 방위협정 체결을 통해 오만 내 군사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2006년 FTA를 체결하는 등 아랍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임. 한편, 미국-이란 간 갈등 상황에서도 오만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이란-P5+1*간 핵협상에 기여하는 등 오만이 걸프 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임.
 -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 한편,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 Qaboos 국왕은 1970년대 부왕 축출 시 영국의 지지를 얻은 바 있으며, 이후 영국의 대 오만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만 FDI의 1/3가량을 영국이 차지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ECA에 대한 연체 없음

- 2019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오만에 대한 원리금 잔액 11,376.5백만 달러(단기 162백만 달러, 중장기 11,214.5백만 달러) 중 연체액은 없으며, 리스케줄링 경험도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19.01)	4등급(2018.01)
Moody's	Ba1 (2019.03)	Baa3(2018.03)
Fitch	BB+(2018.12)	BBB-(2018.07)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 오만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OECD 및 국제신용평가 3사는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대외 차입금 증가 등을 이유로 오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2019. 10월 현재 모두 오만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Fitch와 Moody's는 2018년 12월, 2019년 3월 오만의 신용등급을 각각 BB+, Ba1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한편, OECD는 오만에 대하여 2004년 10월 이후 계속 2등급을 유지해 오다 2016년 1월 쌍둥이 적자 누적, 외환보유액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8년 1월 평가 회의에서 저유가 추세로 인한 쌍둥이 적자 지속을 이유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오만은 2018년 중 국제유가 회복 및 카잔(Khazzan) 가스전 신규 가동에 따른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등으로 1.8%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유가 회복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한편 2019년에는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 및 유가의 더딘 회복세로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0.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아랍의 봄’ 여파로 2012년 시위 사태가 발발하였으나 Qaboos 국왕의 정치·경제 개혁 단행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있음. 다만, 고령인 국왕의 후계자 미지정 문제 및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불만 등이 상존하여 향후 정치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GCC의 일원으로 걸프 지역 주변 국가들과도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에도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
- 쌍둥이 적자 보전 및 주요 국책 프로젝트 발주 자원 마련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94.3%, D.S.R 17.1%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유가의 더딘 회복으로 쌍둥이 적자 및 외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직전 평가보다 한 단계 하향 조정한 C1으로 부여코자 함.